



‘연아 앓이’ 한번 더...

김연아, 내년 1월 전국 종합선수권 출전

‘피겨 여왕’ 김연아(23)의 내년 1월 종합 선수권대회 출전이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내년 1월 3~5일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열리는 제68회 전국 남녀 종합 선수권대회에 김연아가 출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연아는 이미 이달 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 선수권대회 출전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김연아는 원래 10월 개막한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두 차례 이상 실전을 치르며 새 시즌 프로그램을 다듬은 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발목 부상으로 무산됐다. 예정보다 두 달 가까이 늦게 ‘골든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시즌 첫 무대를 펼쳤다.

이 대회에서 204.49점의 고득점으로 우승, 부상 우려를 털어냈으나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종합 선수권대회에서 한 차례 더 실전에 나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무대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지겠다고 선언한 김연아가 국내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실전 경기를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연아는 이번이 시니어 데뷔 이후 두 번째 종합 선수권대회이다.

주니어를 벗어난 뒤 국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김연아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본격적인 ‘빙관 복귀’를 선언한 지난해, 7년 만에 종합선수권대회 무대를 밟았다.

이 대회에서 김연아는 201.77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복귀전 무대로 소규모 대회인 독일 ‘NRW트로피’를 선택한 김연아는 종합 선수권대회를 거쳐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년 만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대회에서 복귀한 뒤 종합 선수권대회를 치르는 김연아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똑같은 영광을 재현할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연합뉴스

마무리 용병, KIA 뒷문 고민 마무리 할까

위기의 선감독, 마운드 정상화 카드로 용병 선택

외국인 선수 운영의 묘 살리고 투수 육성 ‘과제’

마무리 용병. 득이 될까? 득이 될까?
 KIA 타이거즈는 2년 연속 4강에 실패하면서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것도 신생팀에 밀린 8위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구단은 ‘마운드 실패’라는 결과에 크게 실망을 했다.

KIA는 ‘투수 왕국’ 재건을 위해 선동열 감독을 고장으로 불러들여 아깝지는 지원을 했지만 오히려 마운드는 뒷걸음질 쳤다. 마운드 실패는 선 감독의 평가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버락 끝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게 된 선 감독에게는 성적 만큼이나 마운드 정상화가 앞으로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마운드 정상화의 출발점은 마무리, 하이로 어센시오(사진)가 있다.

2014시즌에는 외국인 선수 출장 인원이 ‘2명 보유, 2명 출전’에서 ‘3명 보유, 2명 출전’으로 확대된다. 그만큼 외국인 선수들이 각 팀에 전력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졌다. 사령탑들의 선수단 운영 능력도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된다.

최대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지만 두 명만 경기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와 일정에 따라 외국인 선수 카드 조합을 잘 사용해야 한다.

소사·빌로우와 작별을 한 KIA가 가장 먼저 계

약을 한 선수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우완 하이로 어센시오. 메이저리그 4시즌, 마이너리그 9시즌을 뒀 하이로 어센시오는 마무리로 영입을 한 인물이다.

선 감독은 외국인 선발·중심타자·마무리 구상을 하고 있다. 3장의 카드 중 한 장을 마무리로 사용한 만큼 더 세밀하게 외국인 선수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경우에는 중심타자·마무리 둘 중 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선발+중심타자로 초반 공략을 하느냐, 선발+마무리 조합으로 후반을 노리느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한다. 경기가 박빙의 흘러갈 경우에는 타선의 조커와 마무리 선택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휴식기라는 변수를 감안하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올 시즌 KIA는 휴식기 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추락을 거듭했다. 내년에는 외국인 선수까지 감안해 선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또 외국인 선수 활용의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목표와 함께 마무리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KIA는 포스트 한기주를 만들지 못하면서 몇 년째 마운드 운영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집단 마무리, 마무리 돌려막기는 KIA의 키워드가 됐다.

올 시즌에도 선발 엔서니를 마무리로 돌리는 강수를 썼지만 초반 마무리가 중도에 직위해제됐고, 에이스 윤석민이 다시 마무리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선발진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마무리 고민’으로 시작된 마운드 고민은 더욱 커졌다. 김진우가 마무리를 자청했지만 현장에서 마무리로서의 내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에도 외국인 투수가 마무리 후보가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하이로 어센시오의



마무리 기용은 KIA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마무리 물색, 더 이상 마무리 육성을 미룰 수만은 없다.

성적과 가능성까지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치열한 새 시즌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관건은 착지!

오스트리아 안드레스 매트(오른쪽) 등 4명의 선수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발 토랑스에서 열린 ‘국제 스키연맹(FIS) 월드컵’ 남자 스키 크로스 레이싱(Ski Cross race) 결승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발 토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2300m 고지에 자리한 스키마을이다.

/연합뉴스

올 스포츠, 류현진 활약 가장 빛났다

한국갤럽 2013 빛낸 스포츠 선수 1위...김연아·손연재 順

‘괴물’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2013년을 빛낸 스포츠 선수’ 1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한국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18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2명까지 복수 응답)에서 51.4%의 지지를 받아 올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 선수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위에 머물렀던 류현진은 올해 메이저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4승 8패에 평균자책점 3.00의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서는 7이닝

동안 3안타 무실점 호투로 역대 한국인 투수 첫 포스트시즌 승리투수가 되기도 했다.

2위에는 35.2%의 선택을 받은 ‘피겨여왕’ 김연아가 선정됐다.

김연아는 2007~2009년 3회 연속 1위에 오른 등 2007년 이후 매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 선수 5위권에 들어 박지성(총 7회)과 함께 한국 최고의 스포츠 선수로 꼽힌다.

지난해 올해의 선수 1위를 차지했던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는 올해는 24.9%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다.

올해 친정팀인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에 복귀한 박지성은 18.8%의 지지로 4위에 올랐다. 박지성은 2007~2012년 동안 3위권에 들었으나 올해는 4위로 처졌다.

5위는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에서 강타자로 등극한 ‘추추 트레인’ 추신수(17.0%)였다. 추신수는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6명이 11번밖에 기록하지 못한 한 시즌 20홈런-20도루-100안타-100볼넷-300출루를 달성하며 타율 0.285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동안 후원을 구하지 못해 훈련에 난항을 겪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4관왕에 최우수선수(MVP)까지 들어담은 박태환은 6위(5.9%)에 올랐다. 박태환이 같은 조사에서 5위권 안에 들지 못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이대호(4.7%·오릭스 버펄로스), 손흥민(4.5%·레버쿠젠), 기성용(3.1%·선덜랜드), 이승엽(1.9%·삼성 라이온즈)이 차례로 7~10위를 형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10위 안에 가장 많이 선수를 배출한 종목은 야구(4명)-축구(3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